

## 신덴

신덴(宸殿)은 주로 의식과 기도를 위해 쓰이는 건물로서 17세기 중반에 황실에서  
닌나지 절에 기증했는데, 그때의 건물은 1887년의 화재로 소실되어 버렸습니다. 그  
뒤 1914년에 현재의 건물이 재건되었는데, 이때 황실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이 충실히  
재현되었습니다. 예를 들어 편백나무 껍질을 사용한, 히와다부키(노송나무 껍질로 인  
지붕) 팔작집 지붕은 교토고쇼에서 국가 행사를 치를 때에 사용된 시신덴(紫宸殿)의 건  
축 양식에 따른 것입니다.

신덴에는 세 개의 방이 있는데, 각 방에 하라파(原派)에 속한 화가 가운데 한 사람인  
하라 자이센(1849~1916년)이 그린 맹장지 그림이 있습니다. 하라파는 에도 시대(16  
03~1868년) 후기에 일어난 유파이며, 황실에 고용된 화가 집단으로서 특히 고쇼의  
맹장지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재건된 신덴은 기본적으로 원래의 건물  
을 재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라파의 4대 당주였던 하라 자이센이 맹장지 그림을  
담당하는 것이 걸맞다고 하여 선정되었습니다. 맹장지 그림은 고전적인 일본의 사계를  
묘사한 것으로서, 이른 봄의 작약과 가을의 기러기 등 전형적인 모티프가 사용되고 있  
습니다.